

“원더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외국인 관광객 몰린다

여수항 입항 프랑스 관광객 등 수백여 명 박람회장 다녀가 조직위, 크루즈 연계 상품 개발...체코 등 국가의 날 행사도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맞아 전남 동부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면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외국인 특수를 누리고 있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1일 여수항으로 입항한 프랑스-미국 유람선 관광객 50여 명이 정원박람회장을 찾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여수항에는 유람선 승객 400명을 태운 1만900t급 유람선 '르슬레알' 호가 입항했다.

이들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한 뒤 순천과 여수 등 동부권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일본 후쿠오카로 향한다.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5월 만

개한 장미정원 등 세계 각국 정원을 둘러봤다.

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달 개막 이후 정원박람회장을 찾은 외국 유람선 관광객은 200명이 넘는다.

오는 10월에는 유럽-미국 관광객 350여 명의 방문을 확정했다. 이 밖에도 올해 여수항으로 들어오는 유람선 관광객은 1700명이 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조직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여행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관광재단과 수차례에 걸쳐 여행사 초청 설명회 등을 열어왔다.

조직위와 여행사들은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원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아우르기 위한 취지로 '국가의 날'을 정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주말인 21일 국가정원에서는 '체코 국가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미사 에마노브스키 체코문화원장이 이끄는 금관 5중주가 갯벌공연장 무대를 꾸렸다.

행사에 참석한 구스타브 슬라메츠키 주한체코대사는 체코 국가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정원박람회 체코 국가의 날 행사는 지난달 마리 오네트 어린이 인형극에 이어 두 번째 치러졌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오는 6월21일까지 체코의 유명 정원 식물 그림 작가인 파블리나 쿠르코바의 보태니컬 아트 작품 전시가 진행된다.

한편 박람회조직위는 국가정원 동·서·남문에서 외국인 관광객 표본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반영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정원박람회 누적 관광객은 지난 21일 기준 368만1615명을 기록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국제 크루즈를 타고 온 미국·프랑스 관광객 50여 명이 지난 21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아 순천만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 제공>

광양 망덕포구 횡집거리 '명품 남도음식거리' 된다

편의시설 확충 등 6월 정비 완료 음식거리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오는 6월 말 광양 섬진강 망덕포구 횡집거리 조성을 앞두고 광양시가 최근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최근 이틀에 걸쳐 광양불고기 파크, 섬진강 망덕포구 횡집거리 음식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전남도 선정 남도음식거리에는 서천변 광양 불고기파크가 지난 2016년 먼저 이름을 올린 뒤 망덕포구 횡집거리도 지난 2021년 선정됐다.

광양 불고기파크는 지난 2018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마무리했고, 망덕포구 횡집거리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망덕포구 일대 1.36km 횡집거리는 도비 2억5000만원·시비 2억5000만원 등 5억원을 들여 조성된다.

거리 안내판과 상징물, 사진 촬영 공간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확충, 음식점 위생 환경 정비, 수족관 제작·설치, 종사자 역량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남도음식거리 2곳에 대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음식거리를 활성화해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말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마무리하는 광양 섬진강 망덕포구 횡집거리의 한 음식점이 특화거리를 상징하는 간판을 설치한 모습. <광양시 제공>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추진하는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은 ▲음식점 영입주 대상 친절 및 관광 수용 태세 교육 ▲음식거리 연계 관광 일정 개발 ▲지역 축제 연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날 행사 공간 운영 등을 진행한다. 맞춤형 외식 경영 상담을 받고 영입주 의견을 반영해 간판식(말키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8월에 섬진강 망덕포구 횡집거리 방문

의 날, 10월에는 광양불고기 파크 방문의 날을 진행한다.

김복덕 광양시 보건소장은 "남도음식거리 2곳에 대한 친절 교육과 관광수용 태세를 통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며 "딱거리 거점 공간 경쟁력 강화로 지역적 특색을 담아내 품격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만 습지 생태체험선 '무진호' 운항

순천만역 선착장~무진교 편도 15분 운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순천만습지를 탐방할 생태체험선 '무진호'가 지난 20일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사진>
소형 생태체험선 무진호는 동천 하구 물길을 따라 내륙습지를 탐방하며 순천만습지로 진입한다.

순천만역 선착장(문학관)에서 순천만습지 무진교까지 약 1.2km 편도 운항하며, 약 15분 소요된다.

생태체험선을 운항하는 동천 하구 내륙습지에는 멸종위기 2급 붉은발말뚝게를 비롯한 흑부리오리, 청다리도요, 큰고니 등의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S자 수로를 운항하던 갯벌 생태체험선(에코피아)과 달리 양쪽 갈대군락이 우거진 갈대숲을 운항하며 순천만습지의 색다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기차 플랫폼' 준공

매표소·대합실·대규모 광장 등 조성...기차마을 제2전성기 기대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섬진강 기차마을 '기차 플랫폼'이 모습을 드러냈다.

곡성군은 최근 기차 플랫폼 준공식을 열고 2개 동 613㎡ 규모 건물을 공개했다.



기차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30억원이 들어갔다. 이곳은 기차마을과 떨어진 곡성읍 시가지와 창의공원 일대를 하나로 묶는 관광 핵심 공간 역할을 한다.

기차 철교를 본뜬 이 공간에는 1층 매표소, 2층 대합실, 시계탑, 전망대 등이 들어섰다.

건물 앞에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격자무늬 대규모 광장을 조성했다.

한편 섬진강 기차마을은 내년까지 1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며 대규모 물놀이장과 동물농장을 구축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철도공원 조성사

업을 마무리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기차플랫폼 준공을 통해 섬진강 기차마을은 더 큰 도약과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생활인구 100만 관광의 시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원” 고흥 드론쇼

드론 500대 녹동항 상공 수놓아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드론 500대가 고흥군 녹동항에서 누리호 성공을 응원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녹동항 드론쇼 공연'은 녹동 바다 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걸음과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늘로 떠오른 드론 500대는 누리호 발사 연결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결합한 입체감 있는 우주항공 콘텐츠를 선보였다. '우주산업의 중심 고흥', '누리호 발사', '인공위성&지구', '인사하는 우주인' 등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군은 제21회 녹동바다불꽃축제 행사 개막 첫날인 25일 고흥관광 1000만 시대 도약 달성을 위해 드론 1000대 규모의 스페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고흥 녹동항 드론쇼 공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펼쳐진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고 응원했기에 24일 누리호 3차 발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녹동항에서 열린 드론쇼에서 누리호 성공을 응원하는 문구를 드론이 연출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고흥군 제공>

으로 기대한다"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군 '9미 대표 음식점' 모집

31일까지...물품 지원 등 혜택

고흥군이 오는 31일까지 '고흥 9미 대표 음식점'을 모집한다.

자격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 운영한 외식업소다.

고흥 9미로 선정된 ▲장어탕/구이 ▲서대회무침/조림 ▲매생이국 ▲삼치회/구이 ▲전어회/구이 ▲모듬 생선 숯불구이 ▲바지락회무침/깃경 ▲한우구이 중 1개 이상 메뉴를 판매할 의사가 있는 음식점이다.

고흥 9미 대표 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스토리텔링 보드 제작, 업소별 1:1 컨설팅, 식기 등 물품 지원, 홍보 책자 발행, 시설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고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고흥군 관광정책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잘 담은 고흥 9미

를 대표음식으로 브랜드화해 고흥밤상의 맛과 맛을 널리 알리는 한편, 외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힐링먹거리 1번지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여수서 열대저세미나방 발견...옥수수농가 비상

시, 방제 약품 공급

여수시가 최근 열대저세미나방 성충을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하면서 옥수수 농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옥수수 주요 재배지인 화양면(159ha)과 돌산읍(48ha)에서 성충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열대저세미나방은 중국에서 불철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날아와 옥수수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일 정도 일찍 날아왔다. 피해가 본격화하는 시기는 이달 말부터 6월 초로 예측된다.

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방제 약제와 친환경성페로몬트랩을 공급하고, 성충이 발생한 포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옥수수 농가에서 포획된 열대저세미나방(왼쪽)과 작물 피해 모습.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채널본부장 chkim@kwangju.co.kr>

여수시 관계자는 "열대저세미나방 유충이 3령을 넘어가면 약효가 잘 들지 않으므로 발생 즉시 방제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061-659-44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채널본부장 chkim@kwangju.co.kr